

소중히 아끼고 사랑했던 옛 그림들의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소치 허련 후손 故 허민수 기증 특별전
美 게일 엘리스 허 여사, 시아버지 소장품 광주에 기증
17세기 '묵매도' 등 50여 점... '석농화원' 필사본 공개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작품 중에는 오래된 작은 작 하나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이 '글씨가 빼곡이 적어 있는 선비 그림'을 막연히 소치 허련의 작품일 것이라 추측하였다. 기증작품들을 조사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무척 흥미로워했고, 나는 그들을 통해 이 그림이 중국의 시인이자 학자인 소동파를 주제로 한 '동파입국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일 엘리스 허 여사(85)는 시아버지인 고(故) 허민수(1897~1972) 씨를 그렇게 회상했다. 진도 출신 허민수 씨는 은행가이자 소치 허련 가문의 후손이었다.

게일 허 여사는 시아버지가 물려준 서화 4건 12점을 시아버지 이름으로 지난 3월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했다. 작품은 미공개된 조선 후기 공개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에서 허민수 기증 특별전을 연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의 주제는 '애중(愛重), 아끼고 사랑한 그림 이야기'.

특히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석농화원' 속 미공개 작품이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

세기 문인 서화가 죽전 김진규(1654-1716)의 '묵매도' 등은 당대 서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기증전에서는 '석농화원' 필사본을 최초로 공개할 뿐 아니라 50여 점의 수록 작품 중 15점의 서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이애령 관장은 "기증작 가운데는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게일 허 여사가 50여 년 전, 시아버지 고 허민수 선생께서 아들 내외에게 선물해주신 작품들도 있다"며 "소중히 간직해온 시아버지의 아름다운 유산을 시아버지의 고향과 가까운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하셨고 올해 초 박물관의 뜻 깊은 소장품이 되었다"고 말했다.

게일 허 여사에 따르면 1951년 당시 허민수는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허경모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허경모는 미시간대에 진학하고 박사학위를 마친 후 국제통화기금(IMF)에 입사해 미국에 정착했다.

게일 허 여사는 "1967년 5월 허경모는 가족들과 헤어져 지 1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오랜 세월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아들 귀국을 기념해 직접 쓴 글씨와 소장하시던 허백련의 산수화와 화조화 등을 선물하셨다"고 밝혔다.



허련 작 '괴석묵관도'.

전시는 게일 허 여사가 스토리텔러가 돼 세 주제로 이끈다.

먼저 '소치 허련과 동초 허민수, 그리고 의재 허백'에서는 소치 가문의 후손인 기증자 동초 허민수 선생과 집안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번 기증품에는 소치 허련의 작품 2점이 포함돼 있다. 허민수와 진도의 친척이자 오랜 벗이었던 의재 허백련(1891~1977)과의 인연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새로운 '동파입국도'의 발견'은 신명연(1808~1886)의 '동파선생입국도'를 조명하는 주제이다. '동파입국도'란 중국 송대 문인 동파 소식의 귀양 시절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19세기 문인 박봉빈이 1865년 동파제를 지내기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림을 보는 탁월한 눈, 김광국의 '석농화원''.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김진규의 '묵매도'와 '석농화원' 속 작품 15점을 만난다. 조선 후기 최고의 서화 수장가 석농 김광국의 탁월한 안목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국 국립광주박물관까지 1만 1500km 기증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권혜은 학예연구사는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작품에는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다"며 "전시를 계기로 게일 허 여사의 귀중한 기증의 뜻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허민수 기증 특별전이 열리는 전시실 입구를 컨셉에 맞게 조형화한 공간.

애중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명예홍보대사 '뽕수' 16일 비엔날레 찾아 관람·체험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뽕수'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뜬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에 따르면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전시관에 오는 16일 명예홍보대사 뽕수가 깜짝 출연한다.

뽕수는 당일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아 디자인체험과 함께 전시작품을 둘러보며 행사의 성공 개최를 응원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 후 비엔날레전시관 야외광장에서 뽕 클럽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뽕수는 거침없고 화려한 입담과 긍정적인 성격으로 두터운 팬덤층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EBS 채널 프로그램과 자이언트 TV(구독자 183만명)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송진희 원장은 "뽕수의 디자인비엔날레 응원 방문은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는 물론 지역 팬들과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일 안전관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뽕수의 디자인 체험 및 전시 관람 스폿 등 일부 공간은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베스, 베토벤과 가을을 걷다'

광주 기베스 오케스트라
17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자신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청중들에게 음악의 '품위'를 알려줬던 작곡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 베토벤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된다. 베누스토 광주·전남지부가 주최하고 광주 기베스 오케스트라(회장 편수진)가 주관하는 제13회 정기연주회 '기베스, 베토벤과 가을을 걷다'가 바로 그것. 오는 17일(오후 7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익숙한 에그몬트 서곡이 공연의 막을 연다. 바그너가 강조된 이 작품은 네덜란드 독립투사 '에그몬트 백작'의 기개를 드러내는 장엄한 주제가 돋보이는데, 1956년 당시 헝가리 혁명의 국가(비공식적)로 지정될 만큼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어 피아노 협연자로 송석우가 올라 '피아노 협주곡 제1번 1악장'을 들려준다. 전편을 '힘차고 빠르게



광주 기베스 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광주 기베스 오케스트라 제공>

(알레그로 콘 브리오)' 연주하는 작품이다. 또 '베토벤 교향곡 제2번 D단조 36번'도 예정돼 있다. 마무리 작품으로 쉐베르가 창작한 뮤지컬 '미스 사이공'도 클래식 선율에 담긴 예정이다.

지휘를 맡은 강재진은 경희대 음악대 기악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현재 전남과학대 음악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 협연자 송석우는 광주예고교를 졸업했으며 현

재 전남대 3학년 재학생이다. 2020년 제65회 호남예술제 고등부 등에서 입상 경력이 있다.

강재진 지휘자는 "힘든 역경 속에서도 세기의 작품을 탄생시킨 베토벤 음악으로 가득채운 공연이다"며 "그의 작품을 감상하며 힘든 시기 희망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 공연. 자세한 내용은 북구문화센터(062-410-8368)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실개천 인문학 이야기 마당'

비움박물관, 12월까지 4차례 인문학 강좌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윤동주를 비롯해 마음공부, 사회적 약자,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가 마련된다.

(사)참배움터는 9-12월 4차례에 걸쳐 광주시 동구 대의동 비움박물관에서 '실개천 인문학 이야기마당'을 연다.

인문학 강좌는 ▲9월 17일 '식민지 지식인의 두 초상, 육사와 동주'(김태빈 한성여고 국어교사) ▲10월 15일 '알아차림과 마음공부'(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소장) ▲11월 12일 '가난하고 무지하고 품격없는 장애인 구원자에 대하여'(고병권 철학자·노동장애인 야학교사) ▲12월 17일 '기후위기 시대의 한국철학'(조성환 원광대 교수·한국사강사)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좌는 오후 2~4시 진행되며, 참가비는 회당 1만원이다. (문의 010-9601-8188)

(사)참배움터는 지난 2018년부터 소통공감의 장(場)으로 다채로운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김태빈 한성여고 교사, 고병권 철학자

정경미 참배움터 대표는 "각 분야에서 우뚝 선(牛步千里)의 자세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 무어 실개천같은 맑고 밝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호남출신 50대 젊은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영예롭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찾고자 한다"며 "1회 강연이 아닌 연계된 독서탐방 등의 소모임으로 이어져 새로운 활력이 되는 시민들의 삶과 공부, 질 높은 학습, 수행 연대공동체를 여는 물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